

“우린 고물 아닌 보물”... 할머니 화가들 ‘나눔’으로 다시 청춘

〈나이든 사람〉 〈새 길 만드는 사람〉

담양 박정순 할머니들 7명 대담미술관에서 5년간 교육 받아 지자체 돌며 미술 재능기부...22일 보성 다향제서 전시회

“이거슨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으로 칠하면 되겠소.”
“오메 왜 이라고 뿔링당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살겠네.”

지난 11일 담양 향교리 ‘할머니 화가’ 7명이 미술 교사가 되어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관기마을을 찾았다.

‘향교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순(79)·김금복(77)·이순덕(77)·신이순(76)·정정순(73)·황선봉(72)·신명순(70) 할머니는 지난 5년 동안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에서 전문적으로 미술 수업을 받고, 전시회를 열었다.

평균 나이 74.9세 할머니들은 ‘배움’에 그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대담미술관과 함께 타 지자체를 돌면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신안 중도 태평염전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고, 최근 대담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 수도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날은 ‘맑은 향기로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보성-대담미술관 지역예술교류사업’의 두 번째 수

업 시간이었다. 지난 4월27일 예당리 할머니 21명은 미술관을 찾아 ‘보성에서 떠오르는 것’을 주제로 아트타일 제작 수업을 받았다.

관기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이들은 노인들의 ‘만남’을 열망하고 나서야 ‘아트타일 문패’ 만들기 수업을 시작했다. 보성 할머니들은 득량면 각처지 쌀로 정성스레 만든 ‘몽랭이떡’과 케이크, 과일 등으로 한 상 푸짐하게 차려 ‘향교리 선생님’을 대접했다. 수업 중간 이용부 보성군수가 찾아와 “여러분 모두가 예술가”라며 인사를 건넸다.

정희남 관장은 “이번 수업은 나를 디자인하고, 더 나아가 마을을 디자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이제 여러분은 ‘노인’(老人)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노인’(老人)이고,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말했다.

예당리 할머니들은 향교리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 가족’ 등을 도화지에 스케치한 뒤 타일에 옮겨 그렸다.

신문지와 도화지에 몇 번이고 밑그림을 그린 뒤에야 타일에 작품을 옮기던 김연아(72) 할머니는 “붓을 들면 어찌 내 마음처럼 안 움직인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냈다. 향교리 김금복(77) 할머니의 칭찬이 이어졌다. “잘 그리는데 왜 그래요. 이거 다 굳으면 물을 살짝 문혀서 빨간색을 칠하면 되겠네요.”

박정자(70) 할머니는 “늙자가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속상하다”는 말과 함께 녹차 밭에 심어놓은 소나무와 날아가는 새를 그렸다. 순천여고를 나왔다의 강순덕(83) 할머니는 꽃과 나무로 타일을 수놓은 뒤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진 한자로 쓰면서 타일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금옥(70) 할머니는 손자 8명의 얼굴을 그린 뒤 “예쁜 얼굴들을 다 망친 것 같다”고 아쉬워 섞인 농담을 했다. “보성 물이 좋으니, 여든인데 이렇게 젊소?”라는 농담에 “일흔들인 자네는 새색시 같다”는 칭찬이 돌아오기도 했다.

향교리 할머니들은 색을 섞어 다른 색을 만드는 방법, 물로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을 열심히 설명해줬다. 아트타일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얘기, 남편 얘기 등을 주고 받기도 했다.

향교리 황선봉(72) 할머니는 “미술관에서 이런 것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생각이



지난 11일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관기마을 노인들이 담양 향교리 할머니들에게 배워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 못했는데 우리들은 이제 화가가 됐다”며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남들을 가르쳐보겠느냐”고 말했다. 두 지역 할머니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며 이날 수업을 끝맺었다.

향교리 할머니와 예당리 할머니들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보성 다향제에서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다. 또 이날 두 지역 할머니들은 직접 만든 티셔츠를 입고 방문객들에게 아트 티셔츠를 만들어줄 계획이다.

정희남 관장은 “향교리 할머니들이 배

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보성과 신안 지역 할머니들도 언젠가는 미술 선생님이 되어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보성 전역으로 확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기 잇고 텐트 40동 척척...‘네팔 맥가이버’ 119 구조대

구호물품 운반·가옥 복구 등 곳곳일 도맡아

협준한 지형의 네팔 산악마을에서도 광주시 소방본부 119구조대 특별구조팀들의 진가는 어김없이 발휘됐다.

지난 8일 광주시 아시아재해대응구호협의회(이하 광주 구호협의회) 2차 구조단에 동행한 김희철 소방령 등 광주시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6명은 지진 피해현장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지진 피해로 아픔드리 나무들이 전봇대를 덮치면서 마을 전체가 지진 이후 정전 상태였지만, 이날 119구조대원들이 전기톱 등 구조장비를 이용해 이를 복구, 전기공급을 재개시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대원들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락 하는 탓에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상황이었지만, 집을 잃은 이재민 한 구라도 더 도움을 주겠다고 매일 발걸음

을 재촉했다.

이들은 구호팀으로 참여한 (사)희망나무 정승욱 공동대표와 함께 피해 지역을 돌면서 담요와 모기장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지진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광주에서 가져간 텐트 40개동을 설치해주는 등 곳곳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11일부터는 마니킬에서 10여km 떨어진 카단(Kadan)마을에서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가옥을 복구하는 작업을 벌였다. 대원들은 이날부터 뒤늦게 마을로 복구작업에 들어온 네팔 군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대원들이 전기톱 등 장비를 이용해 서까래 등 큰 기둥을 자르고, 이를 네팔 군인들이 치우는 방법으로 빠르게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지브르산전(62)씨 등 마을 주민들은 119 구조대원들에게 아예 집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119구조대 특별구조팀이 11일 네팔 랄리푸르 마니킬 카단마을에서 지진으로 파괴된 집을 주민들과 함께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랄리푸르(네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19구조대 단장을 맡은 김희철 소방령은 “네팔의 지진 피해현장 중 산을 끼고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여전히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남은 기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시 119구조대 파견은 지방소

방본부 최초로 이뤄져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들은 전남대병원 의료진(단장 신준호 교수) 12명을 주축으로 한 ‘광주시 아시아재해대응구호협의회’ 2차 구조단에 동행해 지난 8일 네팔로 출국했다.

/랄리푸르(네팔)=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 이완구 전 총리 내일 소환

故 성완중 회장 행적 복원...3000만원 수수 집중 조사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14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2일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에 소환해 조사한다.”

성 전 회장의 매모(성완중 리스트)에 기재된 8명의 여권 유력 인사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뵈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금모씨가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 비서관을 불러 강도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는지,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과 운행일지, 성 전 회장 측근 진술 등을 특별 수사팀은 확보한 상태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